

그린 생태계 파트너십 강화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등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 뿐만이 아닌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환경적 책임의 이행을 위해 2019년부터 환경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각각 다른 환경문제 해결 솔루션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때 비로소 친환경·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환경소셜비즈 공모사업¹⁾과 SV² Impact Partnering²⁾을 시행하였으며,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대기업 협력 시범사업 예그(‘에스케이 이노베이션 ‘그린벤처 스케일업 프로그램’)를 출범하였습니다. 예그는 정부기관, 대기업, 외부 임팩트펀드가 환경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협력하는 Green Alliance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핵심과제 ‘그린 생태계 파트너십 강화’를 기반으로 예그의 장기적인 운영뿐 아니라 국내외 환경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신규 Alliance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과제의 성공적 수행은 환경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중심 혁신성장 기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 및 스케일업 지원을 통한 대·중소 동반성장 실현,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환경, 사회,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창업 초기 단계의 우수한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 대상의 사업화 자금 지원
 2) 환경 분야 사회적 벤처기업 대상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의 임팩트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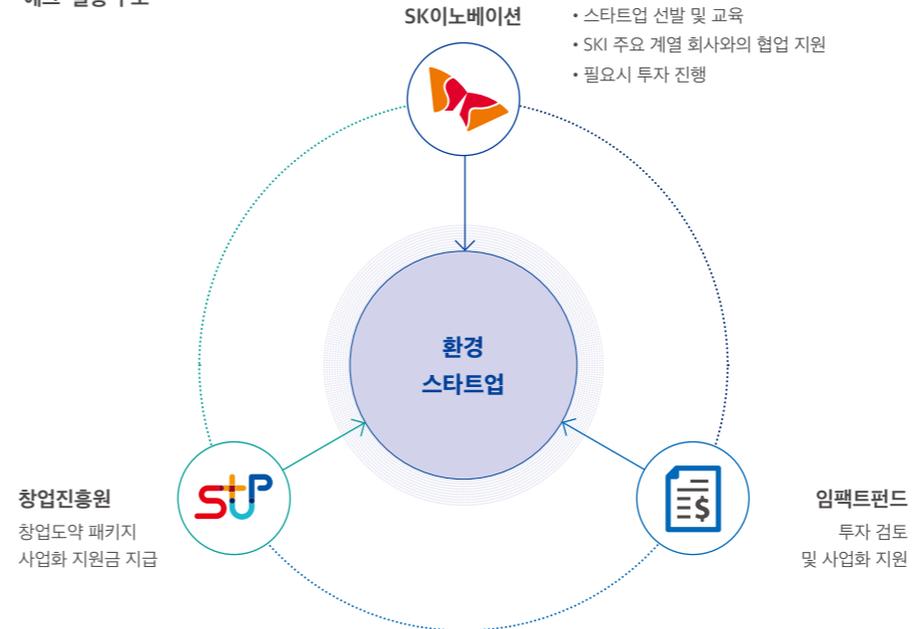
예그(‘에스케이 이노베이션 ‘그린벤처 스케일업 프로그램’) 2기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핵심과제 달성 전략(중장기 전략)

SK이노베이션은 성공적인 핵심과제 실행을 위한 2025년 목표로 ‘환경 스타트업 누적 100개사 육성’을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예그를 통한 20개 스타트업 발굴을 시작으로 매년 15-20개의 스타트업을 꾸준히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기관과의 장기 파트너십 및 외부 투자사 또는 SK 계열사와의 다각화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스타트업 풀(Pool)을 확보할 예정이며, 예그와 유사한 형태의 협업 Alliance를 3개 이상 확보하고자 합니다. 육성한 스타트업의 사후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성과 관리 체계 또한 구축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핵심과제 목표 달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요 계열 회사-환경 스타트업 간 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그’ 실행 구조



Alignment with UN SDGs



2025년 목표



친환경 스타트업 누적

100개사 육성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2022년 활동 계획

2022년 SK이노베이션은 창업진흥원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하고 에그 2기를 론칭하였습니다. 2022년 에그 2기를 통한 15개 환경 스타트업 육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2년 에그 누적 지원 실적은 35개사로 증가하게 됩니다.

에그 2기에는 전기차 배터리, 페플라스틱 자원화, 친환경 신소재, 생산설비 적용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저탄소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선발되었습니다. 해당 스타트업들은 약 10개월 간 SK이노베이션이 기획한 환경 스타트업 맞춤형 교육·세미나 및 오픈 이노베이션 세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21년에 달성한 협업 및 투자 성과에 더해 지속적으로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스타트업 간의 협업 프로젝트를 설계,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ESG Korea 2022³⁾' 등 SK 계열 및 외부 Alliance 참여를 활성화하여 스타트업과의 협업 채널을 다양화 할 예정이며, 파트너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전용 플랫폼 구축 또는 기존 플랫폼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성과

2021년 SK이노베이션은 에그 1기 실행을 통해 주요 계열 회사와 협업을 가능한 환경 스타트업 20개를 선발하였으며, 선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세미나 진행, 주요 계열 회사와의 협업모델 설계 및 실행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세션 개최, 외부투자 연계를 위한 전용 데모데이 개최 및 벤처 캐피탈 네트워크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5개 계열 회사와 6개 스타트업 간의 매칭을 완료할 수 있었으며, 총 10개 스타트업에 대한 외부 투자 유치 및 M&A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그 성과는 2021년 1월 아시아벤처자선네트워크(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AVPN)가 개최한 '제1회 동북아 씨앗'에서 국내 최초의 Green Alliance 사례로 소개되었으며, 포럼 종료 후 말레이시아 국영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 Petroliam Nasional Berhad) 등 글로벌 기업의 프로그램 벤치마킹 요청을 받는 등 SK이노베이션의 국제적 ESG 임팩트 확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스타트업 간 상세 협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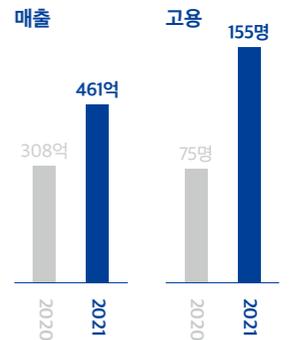
계열 회사	협업 스타트업	프로젝트
SKE	소프트베리	• 서비스 고도화 및 충전 서비스 관련 솔루션 개발 관련 협업 • 2021년 6월 MOU 체결 완료
	JM.WAVE	• SKE 협력사인 로지스퀘어 소속 차주 대상 기존 차량의 EV 개조 실증사업 • 머핀트릭 App 내 전기트릭 사용자 데이터 공유
SKL	에코라이프패킹	• ZIC 유탄유 친환경 날개박스 샘플 제작 및 일부 물량 적용
SKIPC	씨엔엘디	• 페타이어 열분해용 석유화학 공정 투입 및 열분해 고품질재질의 활용방안 개발 • 2022년 3월 MOU 체결 완료
SKON	소프트베리	• 전기차 배터리 진단 시범 서비스 론칭 • 2021년 11월 MOU 체결 완료
SKIET	라잇루트	• SKIET 제공 폐 이차전지 분리막 필름 샘플 활용 소재 연구 개발 진행 • 2022년 7월 MOU 체결 완료



에그 1기 데모데이 행사 전경

에그1기 20개사 매출 및 고용 현황

SK이노베이션은 보유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 스타트업과 함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본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에너지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소비 등의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참여 스타트업이 창출하는 ESG 사회·환경적 임팩트를 지표화하여 관리하고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스타트업의 초기 사업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인 매출과 고용 현황을 지표로 측정·관리하고 있습니다.



3) SK텔레콤이 주관하고 다수의 국내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ESG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2021년 성과



환경 스타트업 외부 투자 유치 및 M&A

총 10개사



에그 1기 환경 스타트업 선발

총 20개사

2021 에그 참여 스타트업 인터뷰

지구를 위한 새로운 쓰임새를 찾는 '라이트루트' | 신민정 대표

라이트루트는 현재 '텍스닉'이라는 리사이클 소재 브랜드를 통해 폐 이차전지 분리막을 재활용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라이트루트만의 독자적인 분리막 재활용 특허 기술력을 인정받아 CES 2022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문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환경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에그에 선정되고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SK아이이테크놀로지서 발생하는 폐 이차전지 분리막 샘플을 제공받아 분리막 재활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독자적인 라미네이팅 기술을 발전시키고 폐 이차전지 분리막과 소재를 접착한 레이어드 고기능 리사이클 섬유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라이트루트는 폐 이차전지 분리막 재활용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와 함께 이차전지 분리막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이트루트 | 신민정 대표



폐 이차전지 분리막과 소재를 접착한 레이어드 고기능 리사이클 섬유

Journey of Mobility, 'JM.WAVE' | 박정민 대표

JM.WAVE는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쉽고 빠르게 변환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모빌리티 구조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물류트럭부터 공항 조업차량까지 다양한 용도의 차량을 개조하여 탄소 및 배출가스 저감, 폐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와 전동화 변환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 협업을 진행하였고 2021년 에그를 통해 환경 스타트업 맞춤형 성장패키지를 지원받아 우리 사업의 성장 전략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 계열과 배터리, 탄소배출권, 정비업, 충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글로벌 인프라를 통해 그린테크 기업으로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JM.WAVE | 박정민 대표



전기 스쿠터 제작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순환자원으로 전환하는 '씨앤엘디' | 황용경 대표

씨앤엘디는 페타이어의 라이프 사이클을 분석하고 파·분쇄, 열분해, 소재화 기술을 개발하여 친환경 오일, 카본블랙, 철, 고무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페타이어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석유화학 소재를 순환자원 소재로 대체하여 환경·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SK이노베이션 에그 프로그램 내 오픈 이노베이션 세션을 통해 SK인천석유화학과 페타이어 재활용 및 열분해유 활용과 열분해 잔재물 처리 관련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협업을 통해 폐기물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장치 산업을 수행하는 국내 환경 스타트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초기 투자는 제한적입니다. 정부기관, 대기업, 임팩트펀드가 협력하는 에그 참여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의 사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선두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씨앤엘디 | 황용경 대표



페타이어 재활용 그린카본블랙 제품

주관부서 코멘트

SK이노베이션은 그린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2019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해왔습니다. 환경소셜비즈 공모사업은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후 진행된 SV² Impact Partnering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이 직접 환경 스타트업에 투자하게 하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임팩트 투자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린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본인의 업무에 이를 적용하도록 한 한 차원 높은 프로젝트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를 활용하여 2021년 국내 최초로 정부-대기업-임팩트펀드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환경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에그가 탄생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에그를 중심으로 환경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돕고 주요 계열 회사와의 협업 모델 설계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저탄소, 친환경 사회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가진 환경 스타트업들이 끊임없이 창업되고, 그린 유니콘으로 고속성장하여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담당 임원: 권영수 ESG추진담당 (ys.kwon@sk.com)
 담당 PL: 조환성 ESG Impact PL (ws.cho@sk.com)

아시아 최대 임팩트투자자·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 AVPN 세션 발표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6월 21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AVPN(Asia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글로벌 컨퍼런스 2022’에 ‘기업의 소셜 임팩트 모델 (Models of Corporate Social Impact: Being Intentional and Strategic)’ 총회 세션 패널로 초대받아,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전략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Asia Venture Philanthropy Network(AVPN)

AVPN은 아시아의 임팩트 투자자들과 사회혁신 기관들의 네트워크로 2013년부터 매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례 소셜 임팩트 회의인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AVPN은 ‘아시아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움직임 (The Asian Decade Vision)’이라는 주제의 글로벌 컨퍼런스를 금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공식 사전 부대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AVPN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사항 중 일부는 G20 정상회의 의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AVPN 글로벌 컨퍼런스에는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정부, 임팩트 투자자, NGO 등 다양한 기관에서 약 1,100명이 참석하여,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위한 공동 과제와 새로운 흐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참여한 총회 세션에는 유럽벤처기부협회(The European Venture Philanthropy Association, EVPA),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onic), 마이크로소프트 필란트로피즈(Microsoft Philanthropies), 트라피구라 재단(Trafigura Foundation)의 사회적 임팩트 관련 부서의 이사급 구성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각 기관 및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소셜 임팩트 사업 모델과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동 세션에서 SK그룹의 경영 철학인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및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방향성 아래, 에너지·화학 중심의 기존 사업 구조를 저탄소 및 친환경 포트폴리오(Low Carbon, Green Portfolio)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가치를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에너지·화학 회사에서 ‘친환경 에너지·소재 회사’로 정체성을 전환해 나가고 있으며, 각 계열 회사별 특성에 맞추어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인 배터리 사업을 기반으로 분리막과 배터리 소재 재활용 등의 친환경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기존 에너지·화학사업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설비 개선 및 제품 자체의 친환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또, 친환경 벤처 육성을 통한 친환경 벤처 생태계 조성을 사회적 탄소중립 시스템 구축 노력의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사회적 임팩트와 비즈니스 자체의 연결이 가능성도 강조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참여 세션 참석자의 평가



Diane Le Goff
Training & Entrepreneurship Global Leader



“ SK이노베이션은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및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 구성원과 함께 사회적 활동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ESG 각 영역에 심도 있게 집중하고 있고, 기업의 전문성을 지역 사회 및 협력사와 연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Vincent Faber
Executive Director



“ 글로벌 기업으로서 SK그룹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지만, 솔직히 SK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조환성 팀장의 금번 패널 세션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행보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이며 그 임팩트 또한 점차적으로 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